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 ‘고졸 취업 기간’ 선정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흥정운군 추모 거리수업 열고 대안 제시 노동부, 실습 업체 직접 감독 등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야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고학교 고(故) 흥정운(18)군 사고(광주일보 10월 11일자 6면)와 관련,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정상화를 위한 ‘거리수업’이 광주에서 열렸다.

28일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광주시 동구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마당에서 ‘현장실습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 30여명이 참석했고, 교사와 추모 시민들까지 총 50여명이 자리했다.

강사로 나선 임동현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와 수강생은 흥군을 추모하는 목념을 시작으로 특성화고 학생이 안전하게 산업현장에 나서기 위한 현장실습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안전사고 등을 알려 현행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임동현 강사는 “현장실습은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어렵게 살던 시절에 생긴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반복되는 제도 개선으로는 쉽게 달라지지 않아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현장 수업에서는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학년 2학기 11월까지의 기업체의 취업 관련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3학년 2학기 12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고졸 취업 준비 기간’(가칭)으로 정해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기간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

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3월에 취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에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개수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김유한 전교조 광주지부 직업위원장 “현장실습 기업체는 아직도 50년 전처럼 현장실습 학생을 ‘저임금 단순 노동력 제공’ 차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을 선정하고 매년 전국 1만 2000여 곳에 달하는 고졸 취업 업체를 노동부가 직접 지시, 감독을 해야 고졸 취업 업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전체 노동환경 개선에 영향을 끼쳐 1년에 2,500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수해경은 흥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띠개비를 떼어내도록 지시한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27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동구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마당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정상화를 위한 공개수업을 열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코로나 여파 헌혈자 급감...혈액수급 비상

광주·전남 올해 15만1764명 헌혈...2019년보다 11.9% 줄어 코로나 이후 첫 위기 경계단계...백신 접종 일주일 후 헌혈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는 15만 176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헌혈자 16만 9843명에 견줘 11.9%나 줄었다.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을

미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혈액보유량은 이날 기준 1.9일 분만 남아있는 상태. 혈액수급 위기단계(4단계) 중 경계단계(2일 미만)다. 혈액수급이 멈추면 이틀 안에 보관 중인 혈액이 바닥을 보인다는 뜻이다.

혈액형 별로는 A형 2.2일분, B형 2.5일분, O형 0.9일분, AB형 1.4일분이다.

혈액수급 위기 경계단계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이며 이대로라면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혈액원의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헌혈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일주일 후면 헌혈이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것 같다”며 “혈액원은 헌혈의 집 소속,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또한 단체 헌혈의 경우 혈액원 버스를 이용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뉴스위크지 ‘임상 분야 세계 최고 병원’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등 3개 분야 선정

전남대병원이 미국 ‘뉴스위크’의 전문분야별 세계 최고의 병원 평가에서 정형외과·내분비내과·소아청소년과 3개 분야가 선정됐다.

세계적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최근 독일의 글로벌 데이터업체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세계 20개국 4만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개 임상분야를 설문·평가한 ‘2022 임상분야 세계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을 발표

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는 세계 91위, 내분비내과 120위, 소아청소년과(전남대 어린이병원) 140위를 각각 기록했다.

세계 톱100에 랭크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는 이번 조사에 선정된 국내 병원 중에서 9번째이자,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또 내분비내과사내과는 국내에서 16번째이자 국립대병원 5위, 소아청소년과는 국내 11번째 국립대병원 중 3번째를 차지했다.

이로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뉴스위크의 월드베스트 병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임상 분야별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남대병원이 세계 속의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연구·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위드 코로나, 위드 북 페스티벌

광주 남구 내달 6일 푸른길 공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남구민 북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 남구는 28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족 구성원은 물론이고 남구민 모두가 치유의 시간을 갖는 ‘제8회 남구민 북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6일 주월동 푸른길 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8회 남구민 북 페스티벌의 주제는 ‘남구민 책으로 여행, 치유의 시간’으로, 책과 관련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먼저 북 페스티벌의 출발을 알리는 무대는 관내 어린이들의 전상의 목소리로 채워진다. 나사렛 어린이집과 봉선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어린이들이 20여분간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 축하공연이 끝난 뒤에는 독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지난 9월에 실시한 글쓰기 ‘책으로 마주여행’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된다.

또 시상식 이후에는 북 페스티벌에 참여한 가족 구성원 및 남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동화 산책길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동화 산책길은 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는 테마 코너로,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퀴즈 풀기를 비롯해 씨앗 주머니와 희망그림책, 드림 북 만들기 등 사다리 타기 및 돌리판 돌리기 등 5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용전들노래와 놀이마당

광주 북구 30일 비대면

광주시 북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용전들노래와 놀이마당’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용전들노래는 용전들 일대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던 노래(노동요)로 60년대 말까지 구전돼 오다 맥이 끊겼으나 2년여의 고증을 통해 1999년에 재현된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농요’다.

(사)용전들노래보존회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

은 모란 만들기·모찌·모심기·논매기·장원질 등의 들노래가 재현되며 이어 즉흥놀이, 진도북놀이, 무등산 호랑이 탈춤 등 흥겨운 공연도 펼쳐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연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전들노래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